

## 황제의 식탁

김인숙  
소설가

도서관에 자주 가는 편이다. 책을 빌리러 가기도 하고, 원고를 쓰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시간을 보내러 가기도 한다. 햇살이 좋은 도서관, 혹은 창밖 풍경이 좋은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일건서가에서 꺼내온 책은 책상 위에 펼쳐 놓고 그냥 창밖만 내다보고 있게 되기도 한다. 물론 한가한 소리다. 내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동안, 내 옆자리 사람은, 그리고 옆 옆자리의 사람은, 실은 나 빼 놓고 거의 전부 다 잠시잠깐의 시간도 아까워하며 뭔가를 후벼파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참고서를 풀고, 외우고, 인강을 듣고, 필기하고, 그 위에 빨간색 밑줄을 몇 번씩이나 긋는 사람들.

가끔은 코앞에 닥친 원고마감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매일 이다시피 도서관에 갈 때도 있다. 노트북을 싸 들고, 메모지를 챙기고, 연필과 빨간색 색연필과 포스트잇과, 아무튼 닥치는대로 다 챙겨서 매일매일 새벽같이. 그런 때는 정수대 앞, 혹은 화장실 앞의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인사를 받기도 한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가끔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묻는 사람도 있다.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공부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최고라고 알고 있다.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른다. 내게 인사를 건넨 사람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복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은, 갑자기 동지가 되거나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눈으로는 서로 ‘화이팅’하기도 한다.

도서관에 가서 얻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의외의 책을 발견하는 것에도 있는데, 서가를 왔다갔다하다가 우연히 뽑아든 책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문장을 발견하거나, 읽기를 멈출 수 없는 줄거리에 꽂히거나, 상상을 멈출 수 없는 인물들을 발견할 때가 그렇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사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도록 한 권을 발견했다.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도록은 2019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던 특별전 때 나온 것이다. 제목 그대로 ‘황제의 밥상’에 대한 것인데, 대한제국 시기의 기록인 만큼 전통과 서구의 물결이 뒤섞인, 말하자면 한식과 양식이 뒤섞인 ‘밥상의 전환기’에 관한 책이라 하겠다.

도록은 말 그대로 그림과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책이니 서가에서 선 채로 보기 좋은 책이기도 하다. 슬렁슬렁 보다가 다시 꽂아두고 또 다른 책을 읽기 좋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붙들었다. 개인적으로 난생 처음일 뿐만 아니라 유사 이래로도 처음인 낯선 서양 음식 앞에서 조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반응보다 나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표현의 방식이었다. 그토록 낯선 밥상 앞에서 그들은 그 맛과 냄새와 온도와 식감을 어떻게 느꼈을까.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남겼을까.

맛과 냄새와 온도와 식감이라면 익숙한 표현들이 있었을 것이다. 시거나 달거나 짜거나 쓰거나... 그도 저도 아니어서 이맛도 저맛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구에 관해서라면 어땠을까.

이 책에는 1876년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기수의 견문록인 『일동기유』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6월 3일의 일기에 도쿄의 한 료칸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연회가 서양식이었던 모양이다. 1876년은 조선과 일본이 「조일수호조규」를 맺어 조선이 처음으로 개항을 한 해다. 그 전에도 물론 서구인들의 침입이나 방문이 없지 않았고, 그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에 서양식 ‘밥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조사하러 온 조선 관리들을 맞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비공식적이었고 그 연회는 기껏해야 배위에 차린 한끼 밥상일 뿐이었다. 김기수가 일본에서 참석한 이 연회야말로 조선 관리가 공식적으로 참석한, 혹은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정식 서양식 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수는 이 연회를 마치 글로 쓴 정밀화처럼 상세히 묘사해 그의 견문록에 남겨두었다. 그 중의 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식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생화 꺾꽂이 두 병과 조화 두 대를 서로 엇갈려 놓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과자와 떡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의 앞에는 각각 자기 접시 두 개를 놓았는데 접시 한 개에는 백포와 떡을 담았으니 백포는 음식을 먹을 적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치는 것이고 떡은 음식을 먹는데 돕는 것이다. 접시 한 개는 비어 있고 아무 것도 없었다. 빈 접시의 왼편에는 대, 중, 소의 손가락 세 개가 있는데, 이빨이 있어 음식을 젓가락질할 수 있으며 짝어 먹을 수도 있다.”

도록에는 김기수의 위와 같은 기록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직

접 서양음식을 주문해 먹고 그 소회를 남긴 한 관리의 서찰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조선 정부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김득량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사촌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울을 떠난 후로 겪어야 했던 한가지 고충은 외국 음식과 식사법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네. 능숙하게 나이프와 포크-오래된 야만인의 유물-를 써야 했던 까닭에 처음 며칠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네. 입술은 베이고 혀를 찌르고 옷에 고기를 떨어뜨리기 일쑤였어.”

김득량은 재기와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사적인 서찰인 만큼 건조한 기록보다 상징적인 과장을 섞은 풍부한 묘사가 돋보인다. 설탕인줄 알고 소금을 커피에 넣었다던가, 꿀인줄 알고 버터를 삼켰다던가하는 일화를 ‘문학적으로’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루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었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네. 주변의 의미심장한 눈길과 웃음을 감지했지만 아무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간파했지. 주변 사람을 보니 노르스름한 뺨가를 빵에 바르길래 꿀이라 생각하고 듬뿍 입에 넣었는데, 맵소사! 꿀이 전혀 아니었다네. 영어로 버터라 부르는 음식이었는데 그 후로 다시는 입에도 대지 않고 있다네.”

김득량의 글에서처럼 우리 조상들이 포크와 나이프를 야만인의 유물이라던가 칼과 창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밥상에 딱하니 놓인 칼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을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기수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크를 이빨달린 손가락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도록에서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그 기발한 묘사에 순간 폭소가 터졌다가, 곧이어 감동적인 기분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있는 힘을 다 하여 한 묘사인가. 기발함과 재기가 아니라 진땀과 노력이 느껴지는 묘사가 아닌가. 포크를 눈앞에 두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김기수의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이 눈에 보일듯하다. 그리고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나는 얼마나 쉽게 쓰고 있다. 익숙한 것을 날름날름 받아먹듯이 한번도 되새기지 않고 꿀꺽꿀꺽 삼키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김기수의 글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었을 터이다. 반면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글은 정보가 아니라 묘사다. 사물부터 사람까지, 사물의 본성부터 사람의 본성까지, 그리하여 마침내는

세계의 본성까지. 익숙한 것은 낯설게 보고, 낯선 것은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 경계의 지점을 새롭게 만드는 것.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바라보는 것이고, 또다시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익숙하지만 구태의연하지 않게, 낯설지만 생경스럽지 않게. 그래서 김기수의 건조하기 짝이 없는 글은 김득량의 재기 넘치는 글보다 내게 오히려 감동적이다. 김기수가 그 글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도 보지 못했을 그 생소한 물건이 아니라 그 생소한 물건이 뜻하는 바였을 것이다. 굴욕적인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의 신분이었던 그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가, 아마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커피를 열광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커피와 함께 이빨 달린 숟가락으로 케익도 먹었을까? 그 시대의 풍경을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해도 즐겁거나 유쾌한 일이 아니다. 고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밤새 깨어있다가 날이 밝아서야 잠들 수 있었던 황제는 커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상이 모두 그를 물어뜯는 이빨과 같았을 테니.

도록을 다시 서가에 꽂아놓고, ‘황제의 식탁’과 관련된 책을 찾아본다. 도서관에 가는 즐거움 중의 또 하나는 뭔가 반짝 흥미가 생겼을 때 곧바로 그와 연관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은 많아지고, 점점 더 끈기는 사라져, 내일 봐야지 하는 것은 영원히 기약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관심가는 것이 있을 때는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

황제에게는 서양 요리사가 있었다. 잘 알려진 손탁이 있고, 손탁의 후임으로 왔던 엠마 크뢰벨도 있다. 1906년 한 해 동안 황제의 서양식 밥상을 책임졌던 엠마 크뢰벨은 그 후 그 기록을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은 ‘나는 어떻게 조선 황실에 오게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우리에게도 소개되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실 것이다.

우리가 서양인들의 밥상이 신기했던 것처럼 서양인들 역시 조선인들의 밥상이 신기했다. 조선인들은 흔히 대식가로 표현된다. 그때 그려진 그림 중에는 수북이 쌓인 밥을 밥상 한가운데 두고 김치 하나만 반찬 삼아 밥을 먹고 있는 풍경이 흔히 보인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과하게 많은 밥이다.

그러나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었던가. 서양인들이 놀라움으로 표현한 대식가의 밥은 실은 우리에게겐 힘이였다.

그래서 나도 힘이 되는 밥상을 차리기로 한다. 밥이 중심인, 그것도 흰 쌀밥으로. 영양학적으로 보면 잡곡 하나 안 섞고, 반찬도 부실한 이 밥상은 매우 나쁜 밥상일 것 같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밥상이 힘이 된다. 이런 밥상에 얽힌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때는 잡곡 섞어먹기 운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쌀 아낀다고 막걸리를 못 빚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쌀수입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쌀아 남아돈다고도 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 떠오르는 건 생일날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 미역국과 함께 놓인 흰쌀밥, 소복이 쌓아올린 고봉밥이다.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던 엄마의 말.

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서른 번을 씹으랬나, 백 번을 씹으랬나. 기억을 더듬어가며.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성과 진심이라고 생각하며, 황제의 식탁같은 내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다.

<끝>